

융합 현상과 ‘(-고) 하-’ 생략

채희락 (한국외국어대학교)

I. 도입

- (1) ‘(-고) 하-’가 생략된 표현:
가. 철수가 온다더라. 나. 아버지가 오라신다.
- (2) ‘(-고) 하-’가 생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관련이 있는 표현:
가. 나도 바쁘단다. 나. 수술을 받자니 (겉이 났다).
- (3) 융합 (fusion, cf. 준말, 축약) (이지양 1996: 30):
연결형에서 완전한 단어에 음절 수 줄이기가 일어나 의존 요소로 재구조화되는 현상.
- (4) ‘(-고) 하-’의 생략여부에 따른 분류: (1) vs. (2)
가. 참된 축약형, 유사 축약형 (남기심 1973/1986)
나. 환원적 융합형, 비환원적 융합형 (안명철 1992, 이필영 1993)
다. 단순 융합형, 진전된 융합형 (이지양 1996)
- (5) 융합형에서 어간(-종결어미) 다음에 오는 요소의 형태-통사적 지위:
‘(-고) 하-’의 생략여부에 따라 다름.
가. ‘(-고) 하-’가 생략되었을 경우: 생략된 어간 ‘하-’에 붙는 요소.
예) ‘오라-시-ㄴ다’의 ‘-시-’와 ‘-ㄴ다’는 굴절접사임.
나. ‘(-고) 하-’가 생략되지 않았을 경우.
- (6) ‘(-고) 하-’가 생략되지 않았을 경우의 어간 다음 요소: 예) (2가)의 ‘-단다’
가. 일반적으로는 ‘-단다’ 전체를 단일 굴절접사(종결어미)로 보고 있음.
나. 채희락(원고)에서는 ‘다’는 굴절접사로, ‘-ㄴ다’는 접어로 분석함.
- (7) ‘(가)-(ㄴ)대, (가)-내, (가)-래, (가)-재’의 분석:
가. ‘-다고/냐고/라고/자고 해’가 줄어든 말 (연세 사전): 전통적 “생략-축약” 분석.
‘다, 냐, -라, -자’ 다음에 ‘(-고) 하-’가 생략되었음.
나. 단어의 일부(굴절접사?)로 취급: Cho & Lim (2004).
다. 중립 화계의 어미를 취하는 ‘하-’의 ∅-형 변이형으로 가정 (cf. 채희락 원고).

II. 소단위어의 형태-통사적 지위: 동사류 소단위어를 중심으로

2.1. 단어/어절 구성 요소의 형태-통사적 지위

(8) 단어/어절의 형태론적 구성:

접어 - [굴절접두사-[파생접두사-어근-파생접미사]-굴절접미사] - 접어

(9) 접어 (clitics): Zwicky & Pullum 1983, Zwicky 1985.

가. Grammatical units with some properties of inflectional morphology and some of independent words.

나. (Inflections) - Phrasal Affixes - Bound Words - Quasi-clitics - (Words)

(10) 극단적인 통사주의 (cf. Ahn & Yoon 1989, Yoon 1990, 최기용 2003):

가. 거의 모든 의존 형태소를 통사적 단어(접어)로 분석.

나. [[[[[[[잡-히]_{VP-시}]_{AGRP-있}]_{TenseP-겠}]_{AspP-다}]_{MooP-고}]_{CompP}

(11) 극단적인 어휘주의 (Cho & Sells 1995, ... 김종복 2004):

가. 거의 모든 의존 형태소를 굴절접사로 분석.

나. 호랑이에게 [잡히-시-었-겠-음-만-으로-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

다. 그런 죄는 [지도자-이-있-었-음-만-으로-는] 용서 받을 수 없다.

라. 잡히시었겠-음-만-이-있겠습니까?

(12) 명사류와 범범주 소단위어

(Chae 1991/2000, Chae 1995, 채희락 1996, Chae & No 1998):

가. 격조사 (주격, 목적격, 소유격 조사): “구접사(phrasal affixes)”

나. 후치사 (postpositions, 부사격 조사): 접어

다. 한정사 (delimiters, 특수 조사): 접어

2.2. 동사류 소단위어의 형태-통사적 지위와 ‘(-고) 하-’ 생략

(13) 동사류 소단위어:

가. 대부분은 굴절접사로 분석이 되어야 함 (Chae & No 1998).

나. 일부, 특히 종결어미 다음 요소(와 연결/전성어미)는 접어로 분석이 되어야 함 (채희락 원고) (cf. 어말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14) 인용격 조사 ‘-고’:

가. 철수가 간다고 한다. vs. 철수가 간다 한다. (남기심 1973/1986)

나. 중립 화계 다음에만 나타날 수 있는 접어(보문소)임.

cf. 중립 화계 어미: -니다/-는다/-다/-라, -더라; -느냐/-냐; -(으)라; -자

(15) ‘(예쁜)-단다’의 전통적 분석 (중의적): 남기심 1973/1986, 안명철 1992, 이필영 1993

등

가. 인용의 의미일 때 -[예쁜-다(-고 하-)-니다]: ‘(-고) 하-’가 생략되었으며 ‘-다’는

‘예쁘.’에 붙는 굴절접사이고 ‘-니다’는 ‘하.’에 붙는 굴절접사임.

나. 단순 기술의 의미일 때 -[예쁘-단다]: ‘-단다’ 전체가 하나의 단일 형태소 어미임.

(16) (15가)의 ‘예쁘단다’에서 생략된 부분:

가. ‘-고 하.’:[예쁘-다(-고 하-)니다]

나. ‘하.’:[예쁘-다 (하-)니다](이필영 1995: ‘-다고 한다’와 ‘-다 한다’는 구어체와 문어체로 공존하는 관계로 봄)

(17) ‘-단다’ 전체가 하나의 단일 형태소 어미인가?

가. 나는 돈이 많-다-니다 (-단다).

나. 나는 돈이 많-다-네 (-다네).

다. 나는 돈이 많-다-오 (-다오).

라. 저는 돈이 많-다-버니다 (-답니다).

(18) ‘(예쁘)-단다’에 대한 채희락(원고)의 분석:

생략된 ‘하.’를 중립 화계의 어미를 취하는 ‘하.’의 \emptyset -형 변이형으로 가정.

가. 인용의 의미일 때 -[예쁘-다 \emptyset -니다]: ‘-다’는 ‘예쁘.’에 붙는 굴절접사이고 ‘-니다’는 영형 동사 ‘ \emptyset .’에 붙는 굴절접사임.

나. 단순 기술의 의미일 때 -[예쁘-다-니다]: ‘-다’는 ‘예쁘.’에 붙는 굴절접사이고 ‘-니다’는 ‘예쁘다’에 붙는 접어임.

다. ‘예쁘단다’의 중의성은 ‘-니다’의 중의성 때문에 생기는 것임.

(19) 접어를 포함하고 있는 용언 어절: 연결 기능 (‘-다거니’와 ‘-자거니’)

가. 죽어도 못 먹겠-다거니 이걸 먹어야 산-다거니 하면서, 어머니와 나는 번번이 싸웠다.

나. 맘을 식힌 인부들은 미루교를 건너가-자거니, 비신을 배에 싣고 강을 건너가-자거니 서로들 의견이 분분하였다.

(20) 접어를 포함하고 있는 용언 어절: 종결 기능 (‘-다니,’ ‘-자니’와 ‘-냐니’)

가. 조금 놀다가 금방 가-다니? 그럼 점심도 안 먹고 가려고?

나. 집에 가-자니? 지금 몇 신데?

다. 몇 살이-냐니? 아니 그래 당신은 당신 아내 나이도 몰라요?

(21) 동사류 소단위어의 분류 (채희락 원고, 4.2절):

	[선어말 어미 -] 굴절접사	[어말 종결 어미 -] 접어
종결	-어, -느냐, -습니까, -자, -니	-니다, -네, -오, -버니다
	-니다, -네, -오, -버니다	-그래, -그러 -니, -니까, -면서
연결	-므로, -어서	
	-거니, -든지	-거니, -든지
	-니, -니까, -면서	-마는

III. ‘-(고) 하-’ 생략과 [대]형

3.1. [대]형: ‘-(고) 하-’의 흔적

(22) ‘-(고) 하-’ 관련 구성: 생략의 정도에 따라?

가. 생략이 없음: 온다-고 하-니다, 온다-고 하-더라

나. ‘-(고)’ 생략: 온다 하-니다, 온다 하-더라

다. ‘-(고)’와 ‘하-’ 생략, [대]형: 온대-니다 [온덴다], 온대-더라

라. ‘-(고)’와 ‘하-’ 생략, [다]형: 온다-니다 [온단다], 온다-더라

(23) “변이용합축약형이 쓰이면 오직 인용의 뜻으로만 해석이 된다”

남기심(1973/1986: 122).

가. 철수도 왔덴다. 나. 이것이 철수의 책이렌다. 다. 그 사람도 갔덴다.

(24) ‘-다 해(요)’의 융합형 ‘-대(요)’: 환원형/비환원형의 과도기에 있는 것

(이필영 1993 118)

(25) 일부 비환원적 융합형의 경우에도 [대]형이 쓰임: “‘하-’ 단축형” (이필영 1993:

132~)

가. 철수가 내일 결혼한[다/대]-나.

나. 설악산이 아름답[다/대]-면서?

다. 철수가 학교에 간[다/대]-니까.

- “... 내포절이 누군가의 말을 표현한 인용절이 되며, 따라서 내포절의 종결형도 평서, 의문, 명령, 청유형 모두 가능하다.”

(26) 남기심(1973/1986: 116)의 분석:

가. (철수가) 간다고 해요 ⇒ (철수가) 간대요.

나. 보문자 ‘-(고)’와 /ㅎ/이 탈락한 것으로 보고 필수 규칙 [+ + ㅎ → ㅎ]을 가정함.

(27) 분석 (26)의 문제점 (cf. 이지양 1996: 83-84):

가. ‘-(고) 하-’의 생략은 일반적인 현상임.

- 단다, -다네, -란다, -런다 (-려고 한다), -다더라 (-다고 하더라)

나. 필수 규칙 [+ + ㅎ → ㅎ]의 문제점: (철수가) 아파 해요 ? 아페요, 자애심

(28) 이필영(1993: 118-)의 분석: [다]와 [대]형의 교체

가. ‘하-어-X’형: -다 # 하-어서 > -다 # 해서 > -다-해서 > -대서

cf. -다 # 한다 > -다-한다 > -단다

나. ‘하-X’형: “‘하-’가 본래 ‘해-’로도 교체될 수 있는 형태적 특성을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 ... 이 때의 ‘-다-’형과 ‘-대-’형은 수의적인 이형태...”

(29) 분석 (28)의 문제점:

가. 관련 음운 규칙의 타당성: [하-어] ⇒ [해], [-다-해] ⇒ [-대] 등.

나. (가)와 (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음운 과정인가?

(30) 새로운 분석 (cf. 채희락 2004, 채희락 원고):

가. 중립 화계의 어미를 취하는 ‘하-’의 Ø-형 변이형 가정.

나. 이 Ø-형 변이형은 ‘하-’와 마찬가지로 반자음 [j]를 가지고 있음.

“[j]-중성 용언” (cf. ‘ㅎ’-중성 체언)

다. ‘(-고) 하’ 생략을 가정할 필요가 없고 일반 음운 규칙으로 모든 현상 설명.

(31) “Silenet *Ha*- Lexical Rule” (cf. “Silent *Be* Lexical Rule”: Sag, et al. 2003)

i-rule

INPUT <ha-j, [1]AGR-ST <..., S[SPEECH-LEVEL neutral], ...>>

OUTPUT <Ø-j, [1]>

(32) 반자음 [j]의 특성:

가. /하-j/의 경우:

1) 앞 뒤가 모두 모음일 경우는 앞이나 뒤로 반드시 축약이 일어남:

하-j-었다 ⇒ 했다, 하였다, *하었다

cf. ‘했다’와 다음의 ‘간대’에서 [애] 다음의 [어]는 생략이 됨

(끝내/*끝내어, 없애/*없애어, cf. 끝냈다/끝내었다)

2) 앞에만 모음일 경우는 축약이 일어나지 않음:

하-j-는다 ⇒ *했다, 하-j-겠다 ⇒ *해겠다, 하-j-(느)냐 ⇒ *해(느)냐

나. /Ø-j/의 경우:

1) 앞 뒤가 모두 모음일 경우는 앞으로만 축약이 반드시 일어남:

간다 Ø-j-어 ⇒ 간대, *간다어, *간다어

2) 앞에만 모음이고 뒤에는 자음일 때: 그 자음을 포함한 요소가 어절말에 올 경우.

(이필영 1993: 125-125 참조)

간다 Ø-j-는다 ⇒ 간덴다, 간단다

간다 Ø-j-(느)냐 ⇒ 간대(느)냐, 간다(느)냐

간다 Ø-j-라 ⇒ 간대라, *간다라 (음운론적 제약?)

간다 Ø-j-자 ⇒ 간대자, *간다자 (음운론적 제약?)

3) 앞에만 모음이고 뒤에는 자음일 때: 그 자음을 포함한 요소가 어절 가운데에 올 경우: 축약이 일어나지 않음 (3.2절 참조)

(33) ‘(내일 아버지가) 오신됐다’ vs. ‘*오신됐다’

가. 이지양(1996: 195): “인용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둘 때 인용동사의 형태를 삭감하는 일은 어렵다” (cf. 오신단다).

나. 새로운 분석: 오신다 Ø-j-었다 ⇒ 오신됐다, *오신됐다 (위 (32나-1)의 경우)

(34) (22다) vs. (22라)

가. (22다): /j/의 영향력이 남아 있음, (22라): /j/의 영향력이 없음.

나. (이 아빠는 매우) 바쁘단다/*바쁘덴다.

- 전자는 [바쁘-다-는다]로 분석이 되지만 후자는 [바쁘-다 Ø-j-는다]로 분석이 되

어 인용의 의미를 나타냄.

3.2. 어휘적 분석: Cho & Lim (2004)

(35) ‘-대/내/래/재’를 단어의 일부(굴절접사?)로 취급.

cf. 전통적 “생략-축약” 분석 (cf. (7가))

(36) 어휘적 분석의 문제점:

가. 모두 환원적 융합형이다 (‘하-’의 흔적 /j/가 남아 있음).

중립 화제 명령형 어미를 포함하는 비환원형 융합형은 없는데 ‘삶으래’는 가능하다.

‘먹었대서’ [먹었다 Ø-j-어서] vs. ‘*먹었다-어서’ [먹었다 Ø-j-어서]: (cf. 32나-1)

나. 왜 ‘*책이대’와 ‘*삶어래’가 아니라 ‘책이래’와 ‘삶으래’로 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다. 순환적으로 나타난다 (예: ‘뛰랬댓대’).

라. 이중주어 구문이 된다 (예: ‘영희가 철수가 잔대’).

마. 인용의 뜻이 명백하다 (“a bi-clausal meaning”).

(37) 자료 (Cho & Lim 2004)

가. 뛰-ㄴ대, 뛰-엇-대, 뛰-겠-대; 뛰-내, 뛰-엇-내, 뛰-겠-내;

뛰-래; 뛰-재

나. 뛰-래-쓰-어

다. 뛸-대-쓰-대, *뛸-대-(쓰)-래, *뛸-대-(쓰)-내

*뛸-내-대, *뛸-내-래, *뛸-내-(쓰)-내

뛰-래-쓰-대, *뛰-래-래, 뛰-래-쓰-내

라. 뛰-래-쓰-대-쓰-대, *뛰-내-쓰-대-래

(38) (30-32)의 분석: 자의적이고 복잡한 메카니즘을 설정하지 않아도 관련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 비문법적인 구성은 밑줄 부분에 문제가 있음.

- [ok]로 표시된 표현은 Cho & Lim (2004)에서 비문법적이라고 했지만 문법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임.

가. 뛰-ㄴ대: 뛰-ㄴ다 Ø-j-어 ⇒ 뛰-ㄴ대-어 ⇒ 뛸대

뛰-내: 뛰-냐 Ø-j-어 ⇒ 뛰-내-어 ⇒ 뛰내

뛰-래: 뛰-라 Ø-j-어 ⇒ 뛰-래-어 ⇒ 뛰래

뛰-재: 뛰-자 Ø-j-어 ⇒ 뛰-재-어 ⇒ 뛰재

나. 뛰-래-쓰-어: 뛰-래 Ø-j-엇-어 ⇒ 뛰-래-엇어 ⇒ 뛰랬어

다. 뛸-대-쓰-대: 뛸-다 Ø-j-엇-다 Ø-j-어 ⇒ 뛸댓대

*뛸-대-래: 뛸다 Ø-j-라 Ø-j-어 ≠ 뛸대래

*뛸-대-쓰-래: 뛸다 Ø-j-엇-으라 Ø-j-어 ≠ 뛸댓래 (cf. 먹으라고, *먹었으라고)

- *똥-대-내: 똥다 Ø-j-냐 Ø-j-어 ≠ 똥대내,
 ok 똥-대-쓰-내: 똥다 Ø-j-었-냐 Ø-j-어 ⇒ 똥댓내
 *똥-내-대: 똥-냐 Ø-j-ㄴ다 Ø-j-어 ≠ 똥내대
 *똥-내-래: 똥-냐 Ø-j-라 Ø-j-어 ≠ 똥내래
 *똥-내-내: 똥-냐 Ø-j-냐 Ø-j-어 ≠ 똥내내
 ok 똥-내-쓰-내: 똥-냐 Ø-j-었-냐 Ø-j-어 ⇒ 똥냈내
 똥-래-쓰-대: 똥라 Ø-j-었-다 Ø-j-어 ⇒ 똥랫대
 *똥-래-래: 똥라 Ø-j-라 Ø-j-어 ≠ 똥래래
 똥-래-쓰-내: 똥라 Ø-j-었-냐 Ø-j-어 ⇒ 똥랫내
 라. 똥-래-쓰-대-쓰-대: 똥라 Ø-j-었-다 Ø-j-었-다 Ø-j-어 ⇒ 똥랫댓대
 *똥-내-쓰-대-래: 똥냐 Ø-j-었-다 Ø-j-라 Ø-j-어 ≠ 똥냈대래

IV. 결론

참고 문헌

- [연세 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1998.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김종복. 2004. 한국어 구구조문법. 한국문화사.
 남기심. 1973/1986.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탑출판사.
 안명철. 1992. 현대 국어의 보문 연구. 박사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이지양. 1996. 국어의 융합 현상. 태학사.
 이필영. 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이필영. 1995. 통사적 구성에서의 축약. 국어학 26.
 채희락. 1996. 한국어의 명사류와 범범주 “소단위어들.” 언어와 언어학 22. 한국외대 언어언
 구소.
 채희락. 2004. 한국어의 소단위어: 동사류 소단위어를 중심으로 [발표 자료]. 2004년 여름학술
 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언어정보학회.
 채희락 (원고). 한국어의 소단위어: 동사류 소단위어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언어인지과학과.
 최기용. 2003. 한국어의 핵 이동: 중결형을 중심으로. 생성문법연구 13.1.
 Ahn, Hee-Don and Hang-Jin Yoon. 1989. Functional categorie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79-88.
 Chae, Hee-Rahk. 1991/2000. The Morphological status of nominal “particles” in Korean. In Chungmin
 Lee and John Whitman, eds., *Korean Syntax and Semantics: LSA Institute Workshop, Santa Cruz,*

- '91, 206-221. Thaeaksa.
- Chae, Hee-Rahk. 1995. Clitic analyses of Korean “little words.”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10*, 97-101.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Chae, Hee-Rahk and Yongkyoon No. 1998. A survey of morphological issues in Korean: Focusing on syntactically relevant phenomena. *Korean Linguistics 9*, 65-109.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 Cho, Sae-Youn and Kyung-Sup Lim. 2004. A lexical analysis of ‘predicate + contraction morpheme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X*.
- Cho, Young-Mee Yu and Peter Sells. 1995. A lexical account of inflectional suffixe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4*.
- Sag, Ivan, Thomas Wasow and Emily Bender. 2003.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2nd ed. CSLI Publications.
- Yoon, Jung-Me. 1990. Verb movement and the structure of IP in Korean. *Language Research 26*, 343-371.
- Zwicky, Arnold M. 1985. Clitics and particles. *Language 61.2*.
- Zwicky, Arnold M. and Geoffrey K. Pullum. 1983. Cliticization vs. inflection: English *n't*.” *Language 59.3*.